2020. 3. 6. (금) 언론보도

경인방송 TV FM

2020년 03월 05일 (목)
종합

<경기소식>스마트폰 하나로 DMZ 도보여행 즐기자 .. 평화누리길 앱(App) 서비스 개시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경기소식>

■스마트폰 하나로 DMZ 도보여행 즐기자 ·· 평화누리길 앱(App) 서비스 개시

경기도는 올해부터 어플리케이션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를 개발, '평화누리길'에 대한 이용자 종주인증과 길안내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는 매년 40만여 명이 평화누리길을 찾고 있는 만큼, 탐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가 트레킹 인증 전문기관과 협력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은 평화누리길 12개 코스에 대한 정보는 물론, GPS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현재 어디를 걷고 있는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경로 이탈 시 '알람'을 울려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습니다.

경인일보

2020년 03월 06일 (금)
종합 02면

멈춰선 '경기도 남북교류'… 평화무드 앗아간 코로나

경기도의 남북평화협력사업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차질을 빚고 있다. 성사 직전 단계까지 갔던 사업도 있던 터라 도는 아쉬운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황해도 유적 조사' 무기한 연기

산림복원·평화콘서트도 밀릴듯

道 "위기 극복후 사업재개 희망"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중국 연변대학교를 통해 북한 개성시 소재 고려박물관과 경기도박물관 간 교류 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 분위기된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시 관련 논의는 잠정 중단됐지만 사업 세부내용 중 하나였던 '황해남·북도 문화유적 조사'는 북한 측 동의를 얻어 최근까지 협의를 이어왔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연변대 소속 연구진들은 조사 작업에 착수했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사업은 현재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연변대 측 1차 조사 이후 자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북한과의 협력 범위를 넓히려고 했던 도 입장에서는 맥이 빠져버리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도가 북한의 산림 복원을 돕고자 국제사회를 설득해 추진하던 '개풍양묘장' 조성사업도 코로나19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도는 지난해 12월2일 이 사업에 대한 UN 대북제재위원회 면제 승인을 지자체 최초로 얻어낸 바 있다.

하지만 위원회가 정한 사업 기간 6개월의 절반가량이 지나도록 도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기폭이나 원활한 추진이 이뤄지지 않는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소통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이다.

도가 국내에서 준비하던 사업들도 마찬가지 진통을 겪고 있다. 도는 다음 달 25일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기념해 김포 사우문화체육공장에서 5천명 규모 '경기평화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도는 이달까지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지 않을 경우 5월 이후로 행사를 미룬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남북협력 사업 물꼬를 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관련 사업이 잠정 중단되는 일이 발생해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감염병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남북 간 협력사업이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배재홍기자 jhb@kyeongin.com

경기일보

2020년 03월 06일 (금)
사회 06면

"스마트폰으로 DMZ 여행이 쉬워져요" 경기북부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도보 여행길인 '평화누리길'의 길안내와 종주 인증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 서비스가 시작됐다. 평화누리길 12개 코스 189km의 전자 스탬프를 모두 받으면, 간단한 설문조사와 함께 관련 정보가 관리자에게 전달돼 탐방객은 종주인증서 및 기념품을 받게 된다. 5일 오전 김포 평화누리길 1코스인 염하강 철책길에서 한 시민이 종주를 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경기신문

2020년 03월 06일 (금)
종합 03면

DMZ 평화누리길, 이제 '앱' 보면서 걷는다

종주 인증·길 안내 '스탬프 투어' 개발 서비스 시작
12개 코스 정보, GPS 기반 현 위치 알림 정보 등 제공

올해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경기도 '평화누리길'에 대한 이용자 종주인증과 길안내 서비스가 시작된다.

도는 이 같은 기능을 갖춘 어플리케이션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를 개발, 올해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5일 밝혔다.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는 매년 40만여 명이 평화누리길을 찾고 있는 만큼, 탐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가 트레킹 인증 전문기관과 협력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다.

어플리케이션은 평화누리길 12개 코스에 대한 정보는 물론, GPS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현재 어디를 걷고 있는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경로 이탈 시 '알림'을 울려 길을 잃어버림 염려도 없다.

종주자들을 위한 '전자인증(스탬프)' 서비스도 주목된다.

그동안 탐방객들은 종이 스탬프북인 '평화누리길 패스포트'를 들고 평화누리길을 걸으며 각 코스 시·종점에 비치된 스탬프 도장을 일일이 찍고, 코스별 인증 사진을 평화누리길 관리자에게 보내야 '종주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어플리케이션은 ICT 기술을 바탕으로 코스 내 반경 50m 내에 위치해 있을 때만 기록이 되고, 각 코스의 70% 이상을 완주했을 경우에 '전자스탬프'가 발급돼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종주 인증이 가능하다.

평화누리길 12개 코스 189km의 '전자 스탬프'를 모두 발급받으면, 간단한 설문조사와 함께 관련 정보가 평화누리길 관리자에게 전달되고 종주인증서와 소정의 종주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12개 코스 완주자는 발급된 전자스탬프를 초기화해 다시 평화누리길을 종주할 수 있다. 재차 완주에 성공하면 '명예의 전당'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어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와 앱스토어(아이폰)에서 '평화누리길 스탬프투어'로 검색하면 누구나 쉽게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 음성으로 길을 안내하는 방식과 주변 관광지를 소개하는 기능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2010년 5월 8일 개장한 '평화누리길'은 김포·파주·고양·연천 4개 시·군 12개 코스로 구성된 총 189km의 대한민국 최북단 도보 여행길로, 해안철책, 한강, 임진강, 역사·문화 관광지 등 여러 명소들이 산재해 있다.

도에서 그동안 문화·관광자원 연계, 탐방객 안전 확보, 걷기 행사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연간 40만여 명이 찾는 문화관광지로 성장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DMZ 비무장지대(dmz.gg.go.kr) 또는 DMZ걸어찾기 홈페이지(dmz.ggtour.or.kr)를 참고 하면 된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기호일보
2020년 03월 06일 (금)
종합 03A면

도 '평화누리길' 앱 개발
스마트폰서 코스 정보 제공

경기도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평화누리길(국토 최북단 도보여행길) 안내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5일 도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를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를 개시했다.

매년 40만 명이 방문하는 평화누리길은 2010년 고양·김포·연천·파주 4개 시·군 189㎞ 구간 12개 코스로 만들어진 도보여행길이다.

이번 애플리케이션은 도와 트래킹 인증 전문기관이 협력해 개발했다. 코스에 대한 기본 정보와 GPS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 이탈 시 알람을 울려 준다. 특히 평화누리길 종주자들을 위한 '전자인증(스탬프)' 서비스가 시행된다. 종이 스탬프북으로 코스별 인증사진을 찍어 보내 종주 인증을 받아야 했던 기존과 달리 ICT(정보통신기술)를 바탕으로 각 코스(반경 50m 이내) 70% 이상을 완주할 경우 전자스탬프가 기록되고 관리자에게 전달돼 종주인증서와 소정의 종주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와 앱스토어(아이폰)에서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로 검색하면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 민부근 기자 bgmin@

경인매일

"DMZ 평화의 길" 걷다가 힘들면 쉬어가세요

(김포=유장수기자)김포시가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김포시 월곶면 용강로 250번길 104에 위치한 조강1리 다목적 마을회관의 실내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김포시)

(김포=유장수기자)김포시가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김포시 월곶면 용강로 250번길 104에 위치한 조강1리 다목적 마을회관의 실내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기존 유휴 건물의 리모델링으로 숙박기능을 강화해 'DMZ 평화의 길'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춰 바닥난방 설치공사, 객실 창호 단열창 추가 설치, 벽지 및 바닥 등 목공사 및 수장공사, 냉난방기 설치공사 등 단열성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한편 'DMZ 평화의 길'은 강화에서 고성까지 한반도를 동서로 횡단하는 도보 여행길로 분단의 현장과 뛰어난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으며, 김포시는 이번 거점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노선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애 문화관광과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문객이 이용할 수 없지만 향후 거점센터가 DMZ 평화의 길 김포코스의 휴식 및 거점 역할을 하기위해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을 탑재한 키오스크를 8월 말 설치 마무리할 예정으로 DMZ 평화의 길 노선에 김포시 대표 관광자원 정보가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점센터는 1층으로 공동홀 57.75㎡(약 17.5평), 20.0㎡(약 6평) 방 2개, 8.1~9.0㎡(약 2.7평) 방 3개, 공동 조리실, 남녀 화장실 및 샤워실로 구성돼 있으며, 최대 4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유엔사 "코로나19에 북한 국경폐쇄…DMZ 다소 조용"

유엔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유엔군사령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현재는 다소 조용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조용한) 상황 가운데 유엔사는 남북 간의 통행을 지원하기 위해 항시 대기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대북원조, 외교 회담, 남북 협력사업 및 기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엔사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에도 북한군 측과 24시간 핫라인(직통전화)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도 유엔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위치한 공동일직실 건물에서 24시간, 365일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DMZ) 출입 확인과 승인 등 유엔사의 기능도 강조했다.

유엔사는 "유엔사의 기능 중 하나는 비무장지대 출입을 확인 및 승인하는 것"이라며 "유엔사는 일일 평균 30건의 출입 신청서를 검토한다. 때로는 50건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출입 목적 또한 한국군 전방부대 시설물 유지 보수와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국가수반 방문과 같은 특별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p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6/05 09:11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